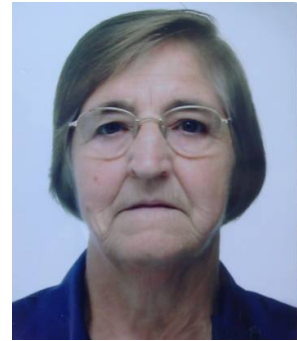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항)



2019 년 12 월 8 일 12 시 40 분(현지시간)

카스아스 도 술(브라질)에서

향년 85 세, 58 년의 수도생활을 하신 우리 자매

마리아 자친타 보프 보르게스 수녀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천사의 알림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신 동정마리아의 응답이 교회의 중심부에서 울려 퍼지는 동안 말씀에 순명하고 하느님 백성에게 헌신하며 사신 우리 자친타 수녀님은 항상 더 가난한 형제들을 사랑하셨던 하느님의 어머니와 선한목자예수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탈리아-독일 출신인 아버지 브라즈 안토니오와 어머니 로벨리아의 딸로 1934 년 6 월 7 일에 토레스/RS 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셨고 1934 년 7 월 15 일 태어난 도시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대가족 출신으로 5 남 7 녀, 총 12 명 형제자매 중 셋째였습니다.

1958 년 2 월 21 일 피라타바/RS 에서 입회하셨고 1960 년 2 월 1 일 카시아스 도 술 에서 입수련하셨습니다. 1961 년 2 월 2 일 카시아스 도 술에서 첫서원을 하셨고 같은 도시에서 1966 년 9 월 2 일에 종신서원을 하셨습니다.

브라질의 여러 도시에서 사목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카주자 페레이라/RS(1976-1979)에서 전례와 가정사목을 하셨고, 살가도 필로-S. 조르게(1979), 무리알도-포르토 알레그레/RS (1980-1983), 제툴리오 바르가스/RS (1984-1989)에서 가정사목을 하셨고, 모로 다 크루즈-포르토 알레그레/RS (1984-1989)에서 어린이 사목을 하셨습니다. 1990 년에 테르체이라 레구아/RS 에서 안식년을 지내셨고, 1991 년에 카주자 페레이라/RS 에서 농촌 공동체를

동반하시며 병자들을 담당하셨고 보도케나/MS(1992-2001)에서 공동체의 아나마트리체이자 어머니들과 건강을 위한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으셨습니다. 2002 년에 테르체이라 레구아/RS 에서 휴양기간을 가지셨고 캄포 그란데/MS(2003-2006)에서 가족 그룹과 제 3 세대를 위한 양성을 하셨습니다. 2007 년 카스카벨/PR, 피구에이로폴리스/TO(2008-2019)에서 가족을 동반하셨습니다. 1971 년 카주자 페레이라, 1983 년 제툴리오 바르가스, 1987 년 포르토 알레그레-모로 다 크루즈에서 공동체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은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친타 수녀님은 기쁨, 단순함, 근면함,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항상 침묵하시는 등 창립자가 제시하신 많은 덕목들을 인식하셨습니다. 언제나 여분의 것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전적인 청빈의 양식을 사셨습니다. 굉장히 환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함께 일했던 하느님 백성들, 특히 작고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피구에이로폴리스/TO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목활동을 하였고 특히 가정과 건강 사목을 활성화하셨습니다. 이미 연로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가족들을 위해 모이는 성경그룹들을 동반하셨습니다. 그 임무는 그분의 깊은 기도생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고 언제나 주님과 단순하고 진실한 관계를 가꾸셨습니다. 영성생활과 매일의 개인 기도생활을 돌보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으셨습니다. 저녁에는 침묵 중에 계셨고 피곤할 때에도 마지막 순간은 선한목자 앞에서 하는 기도를 위해 떼어 놓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배려할 줄 아셨고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자친타 수녀님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해 다양한 쇄신으로 “면학의 바퀴”를 강하게 돌보셨습니다. 관계, 사회 보조 심리학, 관계 심리교육학, 사회활동 지도, 어린이 사목, 사목신학 양성, sjbp 활성화, 사목 직무에서 그분의 어머니이며 자매됨의 질을 높이는 여러 코스를 하셨던 것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친타 수녀님은 최근 피구에이로폴리스/TO 를 떠나신 후 다음에 투입될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건강 사목을 위해 몇몇 유익한 테라피를 준비하셨습니다. 자친타 수녀님은 마지막 시기에 피구에이로폴리스 공동체 폐쇄를 위해 자매들과 강렬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친타 수녀님은 육체적 피로와 혈압과 관련된 여러가지 장애와 여러가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감사와 휴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친타 수녀님은 본당공동체에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한 후 카시아스 도 술 관구로 돌아오셨으나 다음날 아침 뇌졸중으로 병에 걸리셨습니다. 수녀님은 3 일간 집중 치료를 받고 입원하여 가족과 수도회 자매들의 의료지원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자친타 수녀님은 선한목자와 그분의 백성에게 충만하게 헌신하신 생명의 평온함 속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의 시기에 자친타 수녀님께 사랑과 필요한 돌봄을 주신 수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친타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수녀님께 생명과 성소의 선물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목적 모성의
예언으로 우리의 사목 사명의 “미래를 꿈꾸기” 위해 강렬한 친교의 장소가 되도록 브라질의 두
관구 총회를 위해 수녀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총원장

2019 년 12 월 8 일, 로마에서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